

# 남원시 '스마트팜 단지' 조성 착수

대산면 운교리 일원 240억 투입  
내년까지 18.9ha 부지조성 완료  
2027년부터 재배·유통시설 구축

남원시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유치 확정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총사업비가 국비 240억원 전액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일원에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전날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및 민간사업자인 케이티팜웨일리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은 ▲지역 상생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 3자 간 사업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스마트팜 창업단지는 내년까지 18.9ha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연차적으로 스마트팜 재배시설 및 유통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민간사업자인 케이티팜웨일리에서는 2030년까지 총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고령



지난 15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업무 협약식'에서 최경식(가운데) 남원시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김민수(왼쪽) 남원지사장, 케이티팜웨일리 오종석 대표가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된 농촌지역에 활용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은 남원이 문화와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농작물 생산을

넘어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어민 숙원 해결…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완공

직접 경매로 유통단계 감축…신선 수산물 공급·소득 증대 기대

고창군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이 준공됐다.

지난 16일 고창 상하면 구시포항에서는 심덕섭 군수와 조민규 군의장 및 군의원, 김충 고창수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이 열렸다.

고창군수협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한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은 도비 2억 1000만원, 원전상생자금 40억원, 수협 지부당 10억원 등 총 52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바로 옆에는 휘발유 10만ℓ, 경유 20만ℓ의 저 장탱크를 갖춘 어업인 면세유 주유소도 들어섰다.

위판장 내부에는 위판장, 냉동창고, 어업인 회의실 및 휴게실 등을 갖춰졌으며 면세유 주유소에는 해상 출하때까지 설치돼 어선들의 조업 준비 시간이 단축됐다.

그동안 고창의 어업인들은 위판시설이 없어 잡은 수산물을 개인 사매와 인근 위판장으로 이동하여 하는 불편을 겪어왔지만 이제 직접 경매를 통

해 유동단계를 줄임으로써 신선 수산물 공급은 물론 소득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향후 내실 있는 위판장 운영으로 구시포항을 수산물 거점 항구로 육성하고 수협과 함께 어촌관광구역 지정을 추진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신선 수산물을 구매해 즐길 수 있는 수익모델까지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수산물 위판장 준공은 고창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변환점이 될 것"이라며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산물 판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군,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우수상

롯데웰푸드와 고구마 과자 12종 출시·판매…전북 첫 상생 모델

고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며 기업 협업 우수 자체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 발표심사에서 '고창(창) 꿀맛이구마 고창군&롯데웰푸드

글조합 상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고창군의 발표는 기업 협업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적재적소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고창군)-행정안전부-롯데웰푸드가 함께 추진한 전북 최초의 상생 모델이다. 지역 특산물(고구마)을 활용한 과자 12종을 공동 개발·출시했다. 제품들은 2025년 9~10월 두 달간 한정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출시 2주 만에 전량 완판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농가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함께 지역에 활용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을 확대해 '살고 싶은 고창, 머물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방치된 건물 재활용해 방문객 증가·재정 절감…교부세 5억 확보

남원시가 행안부가 주관하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아 교부세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예산 절감 분야에서 '방치된 건물의 기적, 인구소멸지역 방문 증가와 예산 절감'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활용되지 못한 유휴·방치 건물을 효율적으로 재생해 지역 방문객 증가와 재정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간 남원시는 인구감소와 지역 침체 요인으로 지적돼 온 방치 건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공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 공간 기능을 재설계해 불필요한 건립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객과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했다.

이 같은 정책은 공공자산 재활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소멸 지역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실현성 있는 재정 운영 사례로 평가됐다. 특히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한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수성동·충정로 구간 보행환경 정비

2027년까지 보행로 확장·안전 시설물 확충 등 개선



왼쪽 아래가 정읍시청. 시청 앞 충정로 거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정읍시 제공〉

안전 지구로 평소 많은 유동 인구와 통행 차량 때문에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곳이다.

정읍시는 전북자치도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시비 50% 등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

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시내권 중심 업무지구이다 생활

이수정 시장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걷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맞춤형 학습'으로 초·중생 기초학력 'UP'

### 정읍교육지원청 교육 성과

정읍 지역 초·중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교육지원청은 차별화된 학생 맞춤형 학력 신장 사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과 지역 교육력 향상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문해력 분석과 학습코칭, 기초학력 중재교육, 진로·진학 지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세부사업 성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이

실현된 점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정읍교육지원청이 지난 3월 초·중학생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다시 진단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초학력 미도달율이 초등학생은 10.1% 감소했고 중학생은 5.4% 줄었다. 미 도달율 감소는 기초학력의 평균적 또는 전체적 수준 향상을 의미한다. 또 함께 실시했던 학력신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 맞춤형 학습 코칭 캠프 만족도 99.8% ▲학생 해외연수 학생 만족도 95.2% ▲교육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만족도 99.4% 등 응답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틀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